

학 회 소 식

1. 정례학술발표회

제33회 정례학술발표회

일시 : 1995년 1월 21일(토요일) 오후 2시~6시

장소 :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1층 릴리실

제1주제 — 道德規範의 認識과 實踐의 關係 : 性理學을 중심으로

발표 : 李在龍(한국항공대학 강사)

제2주제 — 日帝의 不動産證明制度의 施行과 土地侵奪의 合法化

발표 : 鄭然泰(서울대학교 강사)

제3주제 — 古文書를 통해본 漁村의 소유관계 검토

발표 : 李鍾吉(국민대학교 강사)

제34회 정례학술발표회 : 광복50주년 기념학술대회

‘法’, 그 속에 잔존하는 日帝遺産의 克服

일시 : 1995년 5월 12일(금요일) 오전 9시 30분~오후 6시 30분

장소 : 세종문화회관 대회의실

개회사 : 박병호(본학회 회장)

축 사 : 文仁龜(한국법학원장)

사회 : 이종길(국민대학교 강사)

제1주제 — 일본제국주의의 식민지배구조의 성격

발표 : 金昌祿(부산대학교 법과대학 전임강사)

제2주제 — 식민지 형사법제의 구조와 그 유산 : 청산의 문제

발표 : 韓寅燮(경원대학교 교수)

사회 : 최달곤(고려대학교 교수)

제3주제 — 私法상의 일제잔재의 청산

발표 : 尹喆洪(숭실대학교 교수)

제4주제 — 일제에 의한 가족법제의 왜곡과 청산

발표 : 金容旭(부산대학교 교수)

제5주제 — 법의식과 법생활에서의 일제유산의 극복

발표 : 崔鍾庫(서울대학교 교수)

종합토론

사회 : 한상범(동국대학교 교수)

토론 : 趙東杰(국민대학교 교수; 국사학) 李憲煥(서원대학교 교수; 법학)

朴元淳(변 호 사) 鄭鍾休(전남대학교 교수; 법학)

崔弘基(서울대 명예교수; 사회학) 梁 建(한양대학교 교수; 법학)

제35회 정례학술발표회

일시 : 1995년 7월 15일(토요일) 오후 2시~6시

장소 :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2층 마로니에실

제1주제 — 中國 “唐律”에 나타난 緣坐와 連坐에 대한 일고찰

발표 : 朴春澤(경북대학교 강사)

토론 : 韓基宗(국민대학교 강사)

제2주제 — 朝鮮初期 祭祀相續人 選定法制

발표 : 鄭肯植(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원)

제3주제 — 法史와 美術史의 만남

발표 : 崔鍾庫(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제36회 정례학술발표회

일시 : 1995년 11월 18일(토요일) 오후 2시~6시

장소 :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2층 파인룸

제1주제 — 영국계약법 발전과정에서의 교회법의 역할

발표 : 김성태(연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제2주제 — 朝鮮前期 四代奉祀 논의

발표 : 鄭肯植(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원)

제3주제 — 미국 법사학계의 최근 동향

발표 : 沈羲基(영남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2. 학회동정

1) 1995년도 정기 총회

1995년 7월 15일 개최된 정기총회에서는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을 개임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임 임원진

회장 : 朴秉濠(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고문 : 丘秉朔, 朴光緒, 李鍾恒, 李熙鳳, 張庚鶴, 玄勝鍾

이사 : 金炳大(신임; 순천대), 金容旭(부산대), 金在文(동국대), 金學東(서울시립대), 朴秉濠(서울대), 徐敏(충남대), 沈羲基(영남대), 延正悅(한성대), 尹大成(창원대), 尹載秀(전 동아대), 尹喆洪(승실대), 李相悅(전 호성카톨릭대), 李鍾吉(국민대), 李鍾日(신임; 한국법제연구원), 李炯國(연세대), 任大熙(신임; 경북대), 鄭鍾休(전남대), 崔秉祚(서울대), 崔鍾庫(서울대), 韓基宗(신임; 상지대), 韓相敦(신임; 한양

대) —총 21명

간사 : 심회기, 윤철홍, 이종길, 김창록(신임; 부산대), 정공식(신임)

감사 : 조종식(신임; 전 상지대), 이화숙(신임; 경원대)

회장에 연임된 박병호 회장은 학회의 내실있는 발전을 위하여 한국법사만이 아니라 로마법을 비롯한 西洋法史, 중국을 비롯한 東洋法史의 연구발전에 주력하기로 하여 중국법제사를 연구하는 임대회, 한기중, 한상돈을 이사로 추대하였다.

2) 광복50주년기념 학술대회 개최

제34회 정례학술발표대회는 광복50주년을 기념하여 교육부와 학술진흥재단의 후원, 광복50주년기념사업위원회 주최, 본학회가 주관하여 『法, 그 속에 잔존하는 日帝遺産의 克服』이라는 주제로 1995년 5월 12일(금) 세종문화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학술대회는 5개의 주제발표와 6명의 지정토론자 및 일반토론으로 구성되었으며, 약 400여명이 참가하여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본학술대회에서는 총론으로 일본식민지배구조의 성격이 논의되었는데, 발표자인 김창록교수는 일본제국주의의 식민지배는 “근대법의 징표를 전혀 지니지 않은 천황의 자의적인 지배”라고 논증하였다. 그리고 개별분야에 남아 있는 일제유산을 확인하고 이를 청산하는 방안에 대한 열띤 토론이 있었다. 앞으로 이 자리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하여 더욱 심도 있는 연구가 속출하기를 기대한다.

학술대회의 결과는 광복50주년기념사업위원회·한국학술진흥재단에서 1995년 8월에 간행한 『광복50주년기념논문집 1: 과거청산』에 수록되었다. 학술대회 논문집이 도서관 등 공공기관에만 배포되어 회원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하고 또 토론에서 제기된 알찬 문제들을 학회에 참가하지 않은 회원은 알 수 없기 때문에 본학회지에 그 요약문과 목차 그리고 토론요지를 수록하였다.

아울러 위 5개의 논문과 관련논문들을 새로 편집하여 『일제강점기의 법(가칭)』이라는 단행본을 1996년에 발간할 예정이다.

3. 회원동정

박경량 회원(순천대학교 법과대학 교수)은 독일 Münster대학교에서 1년간의 연구를 마치고 귀국하였다. 앞으로 한국법에 대한 알찬 연구를 기대한다.

심희기 회원(영남대학교 법과대학 교수)은 미국 Stanford 법과대학원에서 1년간의 연구를 마치고 8월초에 귀국하였다. 새로운 시각에 입각한 법사학연구를 기대한다.

이상우 회원(영남대학교 법과대학 교수)은 프랑스 Paris 7대학 법대에 1년간의 연구를 위하여 1995년 8월에 출국하였다.

이우석 회원(영남대학교 강사)은 일본 大阪대학교에서 1년간의 연구를 위하여 1996년 1월에 출국할 예정이다.

任大熙 회원(경북대학교 역사교육학과 교수)을 중심으로 중국법제사에 관한 주요저작물 번역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최종고 회원(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은 6개월간 통일 이후의 독일법의 변화와 역사적 의의를 연구하기 위하여 1996년 1월초에 출국할 예정이다.

李迎春 회원(국사편찬위원회 연구사)은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대학원에서 「朝鮮後期 王位繼承의 正統性論爭 研究」(지도교수 이성무)라는 논문으로 1994년 8월에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이순구 회원(국사편찬위원회 연구사)은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대학원에서 「조선초기 종법의 수용과 여성지위의 변화」(지도교수 박병호)라는 논문으로 1995년 2월에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金元泰 회원은 부산대학교에서 「家事訴訟에 있어서의 節次保障에 관한 研究」(지도교수 김용욱)라는 논문으로 1995년 8월에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金由美 회원은 서울대학교에서 「子女福利의 觀點에서 본 韓國 親權法 - 특히

身上에 관한 效力의 檢討를 中心으로 -」(지도교수 박병호)라는 논문으로 1995년 8월에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池哲瑚 회원(변호사)은 서울대학교에서 「相續回復請求權에 關한 研究」(지도교수 박병호)라는 논문으로 1995년 8월에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孫鉉暻 회원은 부산대학교에서 「韓國家族法上的 姓氏에 關한 研究」(지도교수 김용욱)라는 논문으로 1996년 2월에 박사학위를 취득할 예정이다.

李德承 회원(안동대학교 교수)은 성균관대학교에서 「權利能力없는 社團에 關한 研究」(지도교수 고상용)라는 논문으로 1996년 2월에 박사학위를 취득할 예정이다.

李喆雨 회원은 영국 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s(런던정경학원)에서 「Law, Culture and Conflict in a Colonial Society : Rural Korea under Japanese Rule」라는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1996년 2월에 취득하고 귀국할 예정이다.

李憲煥 회원(서원대 법학과 교수)은 서울대학교에서 「政治過程에 있어서 司法權에 關한 研究 -韓國 憲政史를 중심으로」(지도교수 김철수)라는 논문으로 1996년 2월에 박사학위를 취득할 예정이다.

鄭肯植 회원(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서울대학교에서 「朝鮮初期 祭祀 承繼法制의 成立에 關한 研究」(지도교수 박병호)라는 논문으로 1996년 2월에 박사학위를 취득할 예정이다.

<법사학관련 신간 안내>

- ◎ 咸秉春, 《韓國의 文化傳統과 法》, 한국학술연구원, 1993년 10월.
고 함병춘 박사의 유고집으로 생전에 그가 한글로 발표한 논문과 수필 등 38편을 네 부분으로 나누어 수록하였다.

- ◎ 한상범, 《한국의 법문화와 일본제국주의의 잔재》, 교육과학사, 1994년 4월, 377면.
일제잔재의 청산과 관련된 저자의 글을 모은 논문집이다. 일찍부터 법학계에 남은 일제잔재에 대해 고민해 온 저자의 문제의식을 엿볼 수 있다.

- ◎ 정종휴, 《역사 속의 민법》, 교육과학사, 1994년 10월, 428면.
민법학에 대한 입문서로 민법의 역사와 한국에서의 수용과정, 그리고 민법의 전체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고 민법학의 과제에 대해 언급하였다.

- ◎ 최병조, 《로마法研究(Ⅰ)》, 서울대학교출판부, 1995년 4월, 639면.
저자가 기존에 발표한 논문, 사료, 해석론 등 19편을 수록하였다. 특히 사료 색인을 별도로 마련하여 다른 연구자들의 수고를 덜게 하였다.

- ◎ 崔鍾庫, 《한국의 법률가像》, 길안사, 1995년 5월, 586면.
근대사법 100주년을 기념하여 한말의 이준(李儁)에서부터 현대의 황산덕, 조영래 변호사 등 실무가에 이르는 28명의 생애와 법사상을 정리한 글이다.

- ◎ 尹喆洪, 《所有權의 歷史》, 법원사, 1995년 6월, 317면.
독일을 중심으로 서양의 토지소유권의 역사와 관련하여 저자가 발표한 논문들을 수록하였고, 補編에서는 한국에서의 소유권의 역사와 이론에 대해 언급하였다.

- ◎ 李鍾日, 《大典會通研究: 卷首·吏典》, 한국법제연구원, 1993년 12월, 453면; 《大典會通研究: 戶典·禮典》, 한국법제연구원, 1994년 12월, 648면; 《大典會通研究: 兵典》, 한국법제연구원, 1995년 12월, 416면.

고종 2년(1865)에 편찬된 조선조의 최후 최대의 법전인 《大典會通》을 역주하면서 주요부분에 대한 심층 해설을 가한 연구서이다. 아울러 권말에 원문을 영인하여 편리를 도모하였다. 1996년에 형전과 공전을 발간할 예정이다.

- ◎ 이재룡, 《조선 예의 사상에서 법의 통치까지》, 예문서원, 1995년 7월, 303면.

저자의 학위논문을 수정한 것이다. 중국에서의 규범에 대한 일반론과 이것의 조선조 성리학과의 관련성, 이에서 초래된 조선조의 법제도와 법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 ◎ 吳甲均, 《朝鮮時代司法制度研究》, 삼영사, 1995년 2월, 289면.

조선시대의 사법제도를 특별사법기관과 중앙과 지방의 사법기관으로 구분하고 각 기관별로 사법권의 운영실태를 분석하였다.

- ◎ 김상용, 《토지소유권 법사상》, 대우학술총서·인문사회과학 87, 민음사, 1995년 8월, 516면.

토지에 대한 일반론과, 서양과 한국에서의 토지소유권에 대한 법사상의 전개, 북한에서의 법사상을 정리하고 토지공개념에 대한 법사상적 이론을 제공하였다.

- ◎ 金鐸敏/任大熙 主編, 《譯註 唐律疏議(1): 名例編》, 한국법제연구원, 1994년 12월, 372면.

중국법제사 및 한국법제사의 기초자료인 《唐律疏議》 가운데서 總則에 해당하는 「名例編」을 역주한 것이다. 권두에 해제를 수록하여 이해를 도왔으며,

연구의 편의를 위하여 원문을 본문에 함께 수록하였다. 연구자들이 講讀작업을 거쳐 《唐律疏議》를 번역하였다. 이런 번역사례는 우리나라에서의 번역의 모범이 될 것이다. 그리고 풍부한 주석도 연구자들에게 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 ◎ 鄭肯植, 《統監府法令體系分析》, 한국법제연구원, 1995년 12월, 266면.
1991년에 발간된 《韓末法令體系分析》을 이은 것으로 일제의 침략과정과 통감부의 성립과정, 통감부의 조직과 통감의 권한, 통감부법령의 성격을 서술하고, 통감부법령을 분야별로 정리하였다.
- ◎ 辛虎雄, 《高麗法制史研究》, 1995년 7월, 국학자료원, 406면.
저자의 학위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으로, 고려률의 제정에 대한 논의를 정리하고 고려률이 제정되었음을 논증하고, 범죄구성요건과 실태, 사면에 대해 언급하였다.